

김별아의 문학과 삶



시를 베껴 쓰다

화

도 있다.

‘소설’과 ‘시 창작’ 수업을 듣는 고등학생 아들아이가 수행평가로 각각 25편, 30편의 시를 베껴 쓰고 감상을 적는 숙제를 받아왔다. 좋은 시를 추천해 달라는 아이의 요청에 오랜만에 시집들이 끊힌 책장을 뒤적이다. 그 중 대부분은 ‘시의 시대’라고 일컬어졌던 1980년대에 출간된 ‘고전’들이었다.

그때 나는 어려운 시를 겨우 뜯어내는 듯한 문학과 감상문을 시로 달래었다. 지금 간 모든 날이 이를답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밤을 지새워 시를 읽던 천둥벌거숭이 시절은 내가 기억하는 가장 끄겁고 깊은 나날이다.

실로 1980년대는 산문적이라기보다 시적이었다. 시인들은 시를 ‘뿜어냈고’ 독자들은 걸친스레 그것을 ‘빨아들였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시집이 몇몇, 몇십 만 부씩 팔리는 일도 훤했다. 유다른 독서광이 아니더라도 ‘애송시’ 몇 권쯤은 내세울 수 있었고, 길거리에서 시집을 엎구리에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시인은 소설 ‘25시’의 작가 게오르규가 비유한대로 ‘잠수함의 토끼’와 같은 존재다. 잠수함 밑에서 오염되는 공기를 가장 먼저 깨어재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하여 무고하고 무탈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깎아지는 절벽과 허공 사이에 선 나무들(고광현)’과 ‘모두 별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음(이성복)’을 느끼며 ‘밤새도록 고인 마음의 가래라도 마침껏 뺏자(김수영)’고 즐거거리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출판계에서 시의 위치는 예

전의 영화를 떠올리기 민망할 만큼 초라하다. 시집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미 오래되었고, 간혹 대중적인 인기로 얻었다는 시집은 이른바 ‘낙서시’ 모음이거나 예전부터 유명했던 시들의 짜깁기에 다른 아니다. 시집 초판을 팔기는커녕 시집을 출판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시대에, 그 많던 시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입버릇처럼 ‘소설은 천민의 예술, 시는 천상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내 일자자, 업이자 구원인 소설을 편하게 아니라 소설이나 산문과는 분명히 다른 시의 자리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다. 문득 내가 쓰는 글이 너무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 아니 내 삶이 버섯처럼 먼지 같다고 느낄 때, 나는 다시 시를 읽는다.

먹이사슬의 하위에 속하는 조식동물로서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자 잘 때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눈을 뜨고 자는 토끼의 불안, 극심한 심리적 억압을 받으면 심지어 제자 낳은 새끼의 목을 물어뜯어 죽이기까지 하는 토끼의 신경증을 엿보며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잊고 사는 삶을 다시 한 번 돌아온다.

요즘 들어 부쩍 시가 어렵다고, 잘 읽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읽

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는 불평도 듣는다. 나 역시 읽기 어려운 시가 있고,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들이 있다.

하지만 시인들이 오랜 공력을 들여 펴낸 시집 한 권을 꼭꼭히 읽노라면 반드시 한두 편은 내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고, 그로부터 시작해 다른 ‘여러운’ 시들을 이해하게 된다. 아무리 난해한 시라도 불가해한 삶과 세상만큼은 아니다.

‘법구경’에서는 유팽에 쪽에 넋을 잃은 중생을 ‘빛에 걸린 토끼’로 비유한다. 토끼는 한없이 약하고 순한 짐승이지만 그의 이빨은 평생토록 자란다고 한다. 빛에 걸린 토끼가 빠져나가는 길은 이빨로 강철 몇을 자르고 벗어나는 것이라.

아직 세상에 홀로 내보내기엔 어리게만 보이는 아들아이가 골라 필사해놓은 시들을 읽어본다. 또 바또박 놀려온 시가 아이의 마음 속에 피워놓은 꽃 한 송이가 소박한 감상으로 옮을하다.

독자들이 시를 더 열심히, 더 많이 읽을 때 토끼의 이빨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다. 강철처럼 단단하게만 보이는 세상의 빛을 끊어 내칠 수 있을 때까지.

<소설가>

종교칼럼

방길튼
원불교 니주교당 교무

사회적 효를 바라며

이념으로 상하의 불평등한 신분관계를 뒷받침하는 불온한 정치도구였던 것이다. 어찌 효만을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 사회계약론에 따른 근대국가의 권력도 불순하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의 출발은 부모에 대한 보은이었다. 향후 이것을 지배이데올로기로써 괴롭시킨 것이 문제이지 그 본의는 보은상성이었던 것이다. 부모가 없이 태어날 수도 또 부모의 도움이 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효의 기본이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산업일꾼으로 앞만 보고 일만 했던 세대와 위로는 어른을 봉양해야 하나 정작 자신의 자식에게는 봉양을 보장받지 못하는 긴 세대가 있다. 또한 세대간의 갈등으로 젊은 세대는 앞 세대의 빠른 은퇴를 요구하고 노인 세대는 지속된 일자리를 보장받기를 바라고 있다. 어울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으며 자녀감소로 인하여 뒷 세대는 앞 세대를 떠안고 커지고 있다.

추석을 맞아 효(孝)를 생각해 본다. 조선의 아래를로기는 효와 예였다. 총(忠)도 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해보면 황당하다. ‘효’와 ‘예’는 조선왕조의 지배

회는 갈수록 인간을 자본증식의 도구와 소비의 주체로 부여시킬 것이다. 그러기에 추석과 같은 가족공동체의 명절이 지속되리라 낙관할 수만은 없다. 고향이라는 공동분모도 극성이라는 문화도 희박해질 것이다.

앞으로의 효는 혈연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웃사촌이란 말처럼 이젠 사귀는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이 될 것이다. 1인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도 함께 공유하는 교제공간이 생기고 있다. 취미와 봉사 그리고 서로 사교하는 의미 있는 만남을 주선하는 협동조합도 생길 것이다. 이런 활동이 새로운 가족으로 승화될 것이다.

원불교의 교조이신 소태산 박중빈 선생은 부모은(父母恩)을 친명하시고 부모보은을 하도록 하셨다. 소태산은 부모의 은혜를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가르쳐 주신 은혜로 설명하고 있다. 태어나게 해준 일체의 인연이 부모이며, 길러주고 가르쳐 주면 다 부모인 것이다. 결국 혈연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인연이 부모인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경쟁사회와 소비사

것이다.

이제 효를 가정 안의 문제로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와 국가의 끝이 있다는 것이다. 뒷 세대가 앞 세대를 봉양하고 존중하는 복지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는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적인 과정이며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배려이며 존중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 효 대두되어야 한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목적은 여가를 즐기며 특히 인생의 밤년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끝없는 경쟁과 욕심에 몰아넣기보다는 적정선의 생활보장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체 문화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의 행복은 사회적 효를 어떻게 합의하고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와 주거 그리고 교통과 에너지는 공공재여야 할 것이다.

활기를 띠고 있는 이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참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독서 퀴즈를 맞추는 ‘도전! 빛고기’를 가족 독서 골든벨’, 장희국 시교육감이 깊게 감동받은 도서를 추천하는 ‘판소리와 스토리텔링’, 강운태 시장과 시민들이 함께 큰소리로 책을 낭독하는 ‘시장님과 함께 책 읽기’, 동화인형극, 청소년 동아리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은 선보이는 문화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도서관, 독서단체, 출판사 등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독서체험 부스는 총 50여 개가 운영되며 점토책 만들기, 펌비비즈 공예, 가정에서 잡자는 책을 서로 교환하는 ‘도서교환장터’ 등 독서와 관련된 유익한 체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서관 문화마당’은 우리 광주지역

책 읽는 광주, 행복을 짓다

복지에서 진일보하여 교육복지와 문화 복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를 이끌고 있는 주역은 독서이며 독서의 메카는 단연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책을 읽고 책 속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인류가 죽적한 경험과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시 공간을 조율하여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각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러한 책들이 모여 있는 도서관은 평생 가까이 두어야 할 친구와 같은 존재이다.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어린시절 동네 도서관이었다’는 빌게이츠의 말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날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참여하는 작은도서관, 민간도서단체, 출판사 등 참여단체가 무려 190여 개에 이른다.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이 생기고, 마을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을 찾을 수 있다면’’라는 도서관인으로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숙원과도 같은 바람이다.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대표 도서관인 시립도서관에서는 14일 토요일에 시 교육청과 함께 ‘책읽는 광주, 행복을 짓다’라는 구호아래 시청 문화광장에서 ‘도서관 문화마당’ 축제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도서관 문화마당’은 우리 광주지역 도서관인들의 열원인 빛고기와 시민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독서의 생활화를 목표로 기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축제 개최를 통해 도서관과 책을 매개로 한 지역독서문화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날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참여하는 작은도서관, 민간도서단체, 출판사 등 참여단체가 무려 190여 개에 이른다.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이 생기고, 마을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한 고용이 지속되는 것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의료보험과 산재보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동차 보험은 무사고시 보험료를 깎아준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도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경감의 원칙을 준용해서 일정기간 해고가 없거나 해고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료 징수를 낮춰주되, 해고 비율이 높은 회사에 고용보험료 납부비율을 높여주면 좋겠다.

그리면 회사도 자발적 실업자를 비자발로 고쳐주지 않을 것이고, 지금처럼 보이지 않게 누수 되는 업정난 가짜 실업자들에게 빠져나가는 고용보험료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한마디로 고용주가

활기를 띠고 있는 이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참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독서 퀴즈를 맞추는 ‘도전! 빛고기’를 가족 독서 골든벨’, 장희국 시교육감이 깊게 감동받은 도서를 추천하는 ‘판소리와 스토리텔링’, 강운태 시장과 시민들이 함께 큰소리로 책을 낭독하는 ‘시장님과 함께 책 읽기’, 동화인형극, 청소년 동아리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은 선보이는 문화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도서관, 독서단체, 출판사 등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독서체험 부스는 총 50여 개가 운영되며 점토책 만들기, 펌비비즈 공예, 가정에서 잡자는 책을 서로 교환하는 ‘도서교환장터’ 등 독서와 관련된 유익한 체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서관 문화마당’은 우리 광주지역 도서관인들의 열원인 빛고기와 시민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독서의 생활화를 목표로 기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축제 개최를 통해 도서관과 책을 매개로 한 지역독서문화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날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참여하는 작은도서관, 민간도서단체, 출판사 등 참여단체가 무려 190여 개에 이른다.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이 생기고, 마을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한 고용이 지속되는 것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의료보험과 산재보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동차 보험은 무사고시 보험료를 깎아준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도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경감의 원칙을 준용해서 일정기간 해고가 없거나 해고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료 징수를 낮춰주되, 해고 비율이 높은 회사에 고용보험료 납부비율을 높여주면 좋겠다.

그리면 회사도 자발적 실업자를 비자발로 고쳐주지 않을 것이고, 지금처럼 보이지 않게 누수 되는 업정난 가짜 실업자들에게 빠져나가는 고용보험료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한마디로 고용주가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2-2200-551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교육계 비정규직 양산, 부작용 놔둘 건가

광주와 전남도내 일선학교에서 영어 기간제교사, 영어시간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으로 활동 중인 비정규직 교사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강단에 섰는지, 쳐우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교육청 담당자마저도 잘 알지 못할 정도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523명이던 비정규직이 2012년 8045명으로 최근 6년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전남도교육청도 현재 8031명으로 지난 2007년 4542명에서 2배 가량 증가했다.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데는 교육부의 무분별한 정책사업이 주된 요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영어회화교육 강화를 이유로 채용한 광주·전남의 영어

교사들로 활동 중인 비정규직은 477명, 초등돌봄교실 사업과 워크숍 전문상담사 892명, 스포츠강사 1017명 등 이를 4개 직종에만 2400명에 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이

광주·전남 성범죄 급증 ‘예방치안’ 급하다

광주·전남지역 성범죄가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올해 성범죄를 ‘4대악(惡)’으로 규정, 성폭력 특별관리구역과 여성 안심구역을 정해 방법 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밤길은 여전히 불안하다. 경찰이 실적 경쟁에 급급해 정작 성범죄 예방치안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경찰청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술에 취한 채 강간·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는 172명으로 5년 전인 2008년(149명)에 비해 15.4%나 증가했다고 한다. 전남지역도 음주상태에서 강간·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2008·2009년 각 129명 ▲2010년 143명 ▲2011년 146명 ▲2012년 161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광주·전남의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 음란물 확산과 유흥가 난립, 무분별한 도심 재개발 등에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형가리 출신의 전설적인 투자인이 양드레 코스톨라니는 행복한 삶을 산 투자자로 유명하다. 93세라는 천수(天壽)를 누렸고, 평생 투자로 살면서 막대한 돈을 벌었으며 문화 예술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렸다.

코스톨라니의 투자 이론 중에 ‘개와 주인론’이 있다. 어느 날 개와 주인이 산책을 나갔